불자 세상보기

삼독심, 버리라고만 할 것인가?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삼독심이라고 하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거듭 주지시키고 있다.

범부중생들의 일상적 삶이 끊임없이 무명번뇌의 바다를 헤매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이 탐진치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불교는 우리들로 하여금 탐진치가 가져오는 그것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최종목표인 깨달음은 탐진치를 완전히 지멸한 상태와 사실상 동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안거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특별히 수행에 몰입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출재가자를 불문하고 모든 불자들이 삼독심을 끊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삼독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불교는 언제까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말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동안은 누구나 삼독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착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쩌면 불교가 요즘 사람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희화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지금 불교계 안팎의 시선들은 한국불교의 이런 표리부동함을 예의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불교도 불교고유의 전통적 문법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저마다 이기적이고 물질지향적인 경향이 뚜렷한 현대인들에게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앞세워 다가가는 용기와 이에 필요한 몸짓 및 현장언어를 구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삼독심을 버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이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 과연 당신은 삼독심을 버렸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삼독심을 버리라' 는 명제는 사실상 죽은 명제나 다름없다.

요즘 들어 불교공동체의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들에 실망하는 경우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나 또한 같은 불자로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다.

여기서 문득 암 전문가인 어느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암을 상대할 때에는 무턱대고 쫓아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려니 하고 마음 편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암이 내 몸을 떠날 때까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오히려 암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불자들이 평생의 부담으로 안고 사는 '삼독심 끊기' 도 마치 내 몸속의 암 덩어리를 사이좋게 대하듯 하라는 의사의 조언처럼 해야하지 않을까? 삼독심이 비록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한동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일생의 동반자쯤으로 치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불교적인 방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의 주요 가르침들이 시공간상 부처님 당시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포교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다시 말해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오직 극복의 대상일 뿐인 삼독심에 대해, 예컨대 지나친 욕심을 가리키는 △ '탐심' 은 일에 대한 열정과 미래의 당찬 포부로 △자신과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마음인 '진심' 은 자기반성 및 세상의 옳지 못한 일에 대한 정의감의 표출로 △밝지 못해 어리석은 마음인 '치심' 은 맹목적인 지식의 숭배를 경계하는 가운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겠다는 각오 등으로 승화시켜 재해석될 수는 없을까? 라고 반문하고 싶다.

가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삼독심은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에너지이자 동기유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발칙한 상상을 해 본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삼독심이라면 굳이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함축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불교를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불교의 각종 진리들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부대중 칼럼

지혜의 눈 갖추면 아름다워져

김윤희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

일곱 살이던 아이가 물었다. "세련됐다는 말이 뭐예요?" 라고. 순간, 멈칫 했다. '백지상태일 아이에게 무어라 답을 해줘야 제대로 해주는 것일까.' 며 정리를 해보았다.

"응, '아주 이쁘다' 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아주 조화롭다' 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는 "조금만 더 자라면 정확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힘들겠구나"하며 대화의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경전을 접하는 시간에 난 무릎을 탁 내리쳐야만 했다. 경전의 구절을 조목조목 짚어 내려가던 스님의 설명은 그리도 간단없이 답을 주는 것이었다.

"아름답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화롭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화롭다는 말은 세련되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안목(眼目)이 있다는 표현이면 족합니다."

자칫 현상에 끄달린 외형만을 평가하는 잣대로 그칠 수 있으나 실은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여실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은 현상만이 아니라 의식을 관장하는 사람됨의 도리이기도 하며 상황을 잘 알아, 분에 넘치지도 않으며 부족하지도 않은 '순간의 예지' 와도 같은 타당성의 발휘라고 보면 옳을 듯하다.

그런가 하면 자연이 연출해 낸 생멸의 노래로도, 고졸미를 풍기는 고택의 고색창연한 자태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빚어내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은 조화로움의 실체를 발견하곤 한다.

내가 지금껏 목도한 자연은 언제나 겸허한 대상이었다. 추위를 몰고 와 숨을 죽이듯 움츠리고 있다가도 새순을 틔워 꽃을 피우고 잎을 돋게 하는 경이로움은 해를 더하며 보고 또 봐도 새록새록 하기만 하니 그만한 조화가 어디 있으랴. 그런가 하면 사물을 통해 발견하는 조화 역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를테면 전통의 미를 간직한 고택이라든가, 천년의 사원이 뿜어내는 고졸미에서는 선인들의 장인정신과 함께 문화유산의 우수성, 그리고 풍요를 느끼게도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서도 으뜸의 자랑이다. 그러기에 사람이 가져다주는 희망의 언어는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천재지변 속에서도 회생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한다.

나의 무대는 언제나 사원이었고, 그 사원에 들어 살아가는 승가와의 어울림이다. 언젠가의 글에서도 잠깐 밝힌 적이 있듯이 불교에서의 승과 속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승가는 위없는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녀 그를 재가에게 가르쳐주는, 부처님을 대신하는 스승이며 재가는 존재하지 않는 부처님의 실상을 수승한 승가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익히고 훈습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승가가 어깨를 걸고 나란히 걸어 나가는 도반이듯 승·속의 관계 역시 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승가의 면면을 글로 옮기는 나의 작업이라든가, 책을 만드는 일은 오래도록 보아 온 승가의 전통과 훼손되지 않은 오롯함을 바르게 전하는 몫이 되며 오도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록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긴 하나 난 그 원칙에서 이탈하지 않고자 했으며 수행과 복력이 더해져 원력을 갖춘 법담을 수지하고 돌아서는 때의 감화는 늘 모골을 송연케 하는 양식이었다. 그러니 끼니를 거른다 할지라도 허기는 느껴지지 않았으며 그 '공부' 만을 쥐고도 거뜬한 일상을 꾸릴 수 있었다. 그렇듯 차곡차곡 쌓여가는 에너지가 나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기운이었으며 최상의 아름다움이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지나고 보면 미간을 훑고 지나치는 바람처럼 순식간의 일로 점철된다. 그러기에 단 한 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며 정성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리하여 자애로운 언어와 행이 구족되면 진정으로 안목(眼目)을 갖춘 불자로 거듭날 것이며 그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모습의 실체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여덟 살이 된 아이를 향해 난 답을 한다. "지혜의 눈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를 일러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라고 말이다.

社說

조선왕실의궤 오대산사고에 둬야

일본 황실에 보관됐던 조선왕실의궤가 이르면 올가을 반환된다.

문제는 의궤가 반환된 이후이다. 의궤가 국내로 돌아오면 법에 따라 우선 문화재청이 보관·보존처리를 한다. 그러는 동안 문화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궤의 소장처를 논의하게 된다. 소유권은 국가가, 관리는 문화재청이, 장소는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 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의궤에 앞서 2006년 반환된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과정을 거쳐 규장각에 보관 중이다.

의궤 반환을 앞두고 오대산 월정사, 서울대 규장각, 국립고궁박물관이 각각 자신들이 의궤 소장처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정사를 비롯한 불교계에서는 의궤만큼은 조선왕조실록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반환된 문화재는 제자리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조선시대 문화재를 모두 이씨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최 청장은 "더 길게 말하면 오해가 생긴다. 나중에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끝냈지만,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이 같은 생각이 문화재위원들의 공론이 될까 우려스럽다.

나아가 해외에 반출돼 앞으로 환수될 문화재 다수는 불교문화재일텐데, 국가의 소유권 운운하는 주장에 두 번, 세 번 양보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로 굳어지기 쉽다. 이것이 불교계가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되찾은 문화재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옳다.

한중일 불교교류 활발발하길

천태종이 중국 국청사에서 조사기념당 개금불사 회향 및 낙성 제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교류를 시작한 지 20여 년, 양국간 우호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중국 불교는 한때 문화혁명으로 큰 해를 입었다. 시들었던 불교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벤치마킹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천태종이다. 중국은 천태종의 3대지표인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정신적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다. 부처님 법을 중국을 통해 들여왔던 한국이 1600년이 지난 지금 중국으로 불교를 역수출하고 있다.

중국 천태종 본산 국청사에는 천태종 상월 조사상이 봉안된 조사기념상이 있다. 천태산 기슭의 지자육신탑원에는 일본 천태종 본산 히에잔 엔랴쿠지 불자들이 중일 불교 친선을 기원하는 기념탑을 세웠다. 천태산은 한국·중국·일본 천태종이 하나로 만난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가르침이 현현한 도량이다.

만공 선사는 "세계는 한송이 꽃이라는 생각을 바로 지니면 세상은 편한 것"이라며 "세계일화의 참 뜻을 펴려면 미웠던 원수마저 부처로 봐야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처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물며 나라만 달랐지 같은 불자들임에랴.

많은 이들이 세계평화를 기원한다. 불자들이 부처님법으로 하나되는 것은 세상을 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한중일 천태불자들의 교류가 존귀한 불사인 까닭이다. 한중일 불교계의 활발발(活發發)한 더 큰 교류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한국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춘하추동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여름·가을·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뉘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